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돌담 위의 꽃 한 송이

돌담 위에 핀 꽃 한 송이. 그 전생을 들으니 나의 오늘은 참으로 어쭙잖다. 그리워서 피는 꽃이란다.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린단다. 그래서 담장 위로 핀단다. 여름 한 철의 전생이 저토록 명료한 것을. 나의 오늘은 아직도 전생을 알지 못한다. 오늘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 어쩌다 꽃 한 송이에 걸음을 멈춘 오늘 하루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어느 덧 능소화 꽃잎도 하나 둘 떨어지고 뜨거웠던 여름도 저물어간다. 나도 저물어 간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승한 스님의 좋아좋아 행복코칭

아이와 친구 되어주기

내 자식이 바로 부처님이다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자식이 미워 죽겠어요."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참가자가 많다. 남편(아내)은 그렇다 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자식이 왜 미운 걸까?

이유는 한 가지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다.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제각각 놀기 때문이다.

환경과 성격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 그러나 원인은 자기 욕심이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화가 쌓여 미운 감정으로 변하는 것이다. 제아무리 자식이지만, 미운 감정이 쌓인 아이와는 친하게 지낼 수 없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물며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는 일에 있어서이랴.

부처님은 인간에게 '3가지 기본 번뇌'가 있다고 하셨다.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이다. 그 가운데 욕심을 맨 앞에 둔 것은 욕심이 모든 번뇌의 우두머리기 때문이다. 욕심 때문에 화가 생기고, 그 근본이 어리석음이라고 보신 것이다.

어리석음은 왜 생기는가? 분노는 왜 생기고 욕심은 왜 생기는가? '조건들' 때문이다. 욕심이 생기게 하는 조건들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그 조건들을 또한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생기고, 또 욕심이 생기고, 또 화가 생기고,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아이 문제도 마찬가지다. 아이는 아이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가라는 학원은 안 가고, 하라는 심부름을 안 가는 등 미워할 조건이 하나둘씩 쌓여가면서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자식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 또 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조건에는 또 다른 조건들이 선행해 있다. 아이는 공부를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조건들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엄마 아빠가 허구한 날 싸운다든지, 제 공부방이 없다든지,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든지 등등 부모가 미처 알지 못하는 조건들 때문에 아이는 공부를 안 하는(못하는) 것이다. 그런 조건이 쌓이고 쌓여 아이는 말 안 듣는 아이가 되고, 조건들은 생각지도 않은 채 부모는 말 안 듣는 자식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부모들이 아이와 가까워지는 방법은 단순하다. 미움의 조건들만 쳐내면 된다. 미움의 가지들만 쳐내면 아이와 금방 친해지고 친구가 될 수 있다. 본래 아이를 본래 아이로 만날 수 있다.

그 길 역시 간단하다. 욕심을 내려놓고 아이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대대로 조종하지 않으면 된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안 한다고 닦달하지 말고 아이가 왜 공부를 안 하는지 조건부터 살펴 없애주고, 심부름을 잘 하지 않고 학원에 잘 가려 하지 않으면 왜 심부름을 하려 하지 않고 학원에 가려 하지 않는지 조건들을 알아차려 조건들의 가지를 쳐내주면 된다. 아이가 말썽을 일으켜도 말썽을 일으키게 한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 없애준 뒤, 아이를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감싸주면 된다.

습관들이기와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새벽예불은 그런 습관들이기와 훈련 방법으로 아주 좋은 방편이다.

새벽예불의 목적은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하는 일이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는 일이다.

부부·자식 미운 이유는
자기 뜻에 따르지 않기 때문
탐·진·치 번뇌 버려야
본래 내 자식 만날 수 있어

아이의 눈동자를 보라. 누가 들어 있는가? 내 눈동자를 보라. 누가 들어 있는가? 아이의 눈동자 속에 내가 들어 있고 내 눈동자 속에 아이가 들어 있다. 부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고 하셨다. 내가 부처고 상대방이 모두 부처인데, 하물며 내 눈동자 속에 날마다 살고 있는 우리 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공경해야 할 부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조건들을 바로 살피고, 내 눈동자 속에 날마다 살고 있는 '아이 부처'에게 지극한 공경심을 가지고 다가갈 때, 그리고 아이의 말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줄 때 '아이 부처' 역시 지극한 공경심을 가지고 '부모 부처'에게 친구로 다가와 부모 말에 진정으로 귀 기울인다.

아이들은 영리하다. 부모가 아이를 소유물로 여길 때 아이는 용수철처럼 바로 튕겨나간다. 부모의 욕심이 크면 클수록 튕겨짐의 반동은 더 세다.

집에서 새벽예불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새벽(가능하면 새벽 3시~새벽 5시)에 집 안의 적당한 곳에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촛불과 향을 켠 뒤 마음속으로 간절히 부처님을 그리며 지극한 공경심으로 예불문을 염송하고, 절하고, 기도하면 된다.

이때 명심할 일이 있다.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간절히 그리되, 그 부처님이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이를 부처님이라 생각하며 매일 새벽마다 지극정성으로 공경을 드리는데 아이가 미워질 수 없고 친구가 되지 않을 리 없다.

아이와 친구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조건은 부모 욕심이다. 욕심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아이 말에 귀 기울여라. 아이가 부처로 보이고, 친한 친구로 다가온다.

Tip

부모 위한 마음 살림살이

다음은 어느 수행단체에서 사용하는 마음 살림살이 법이다. 필자가 살짝 응용했다.

1. 남의 허물은 내 허물처럼 덮어주고, 내 허물은 남의 허물처럼 파 뒤집는 마음으로 살기
2. 남의 허물이 보이면 그게 곧 내 허물인 줄 알고 살기
3. 누구를 보든 상대방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기
4. 누가 뭐라고 해도 "예"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기
5. 누구를 만나든 베푸는 마음으로 살기
6. 화나거나 슬프거나 힘들거나 괴로울 때, 올라오는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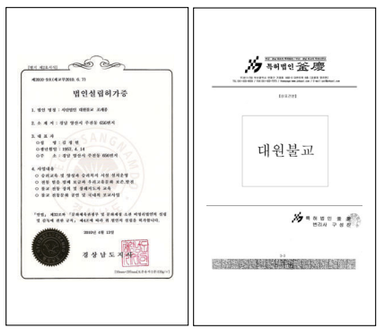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대전종무원장 석법오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능현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전국청년회장 한관영

명리학, 성명학 교육원 수강생모집
수년간 명리학, 성명학을 배우고도 아직 통변이 되지 않는 분은 확실하게 지도함.
※ 용신, 격국에 대한 중점강의
010-3711-5072 교육원장 석유심 합장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